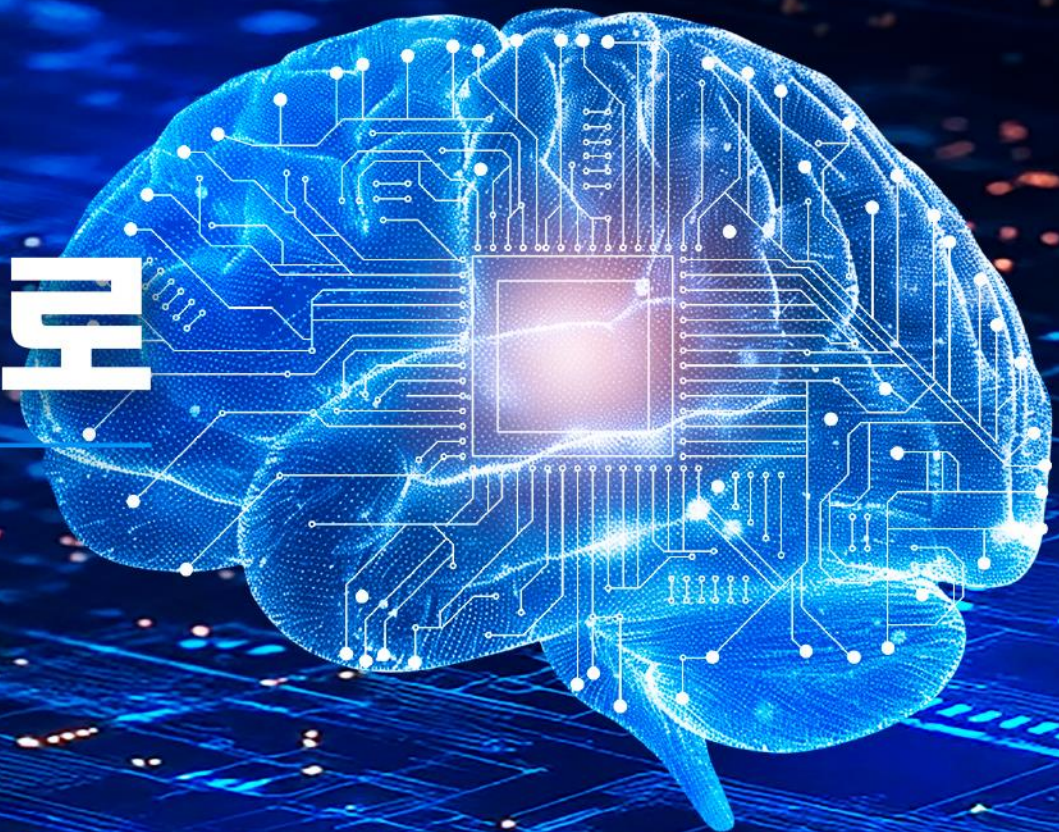




MWC 2026

연결을 넘어 지능의 시대로



2026. 3. 9 자동차/로봇 송선재 | 전기전자/휴대폰 김민경

하나증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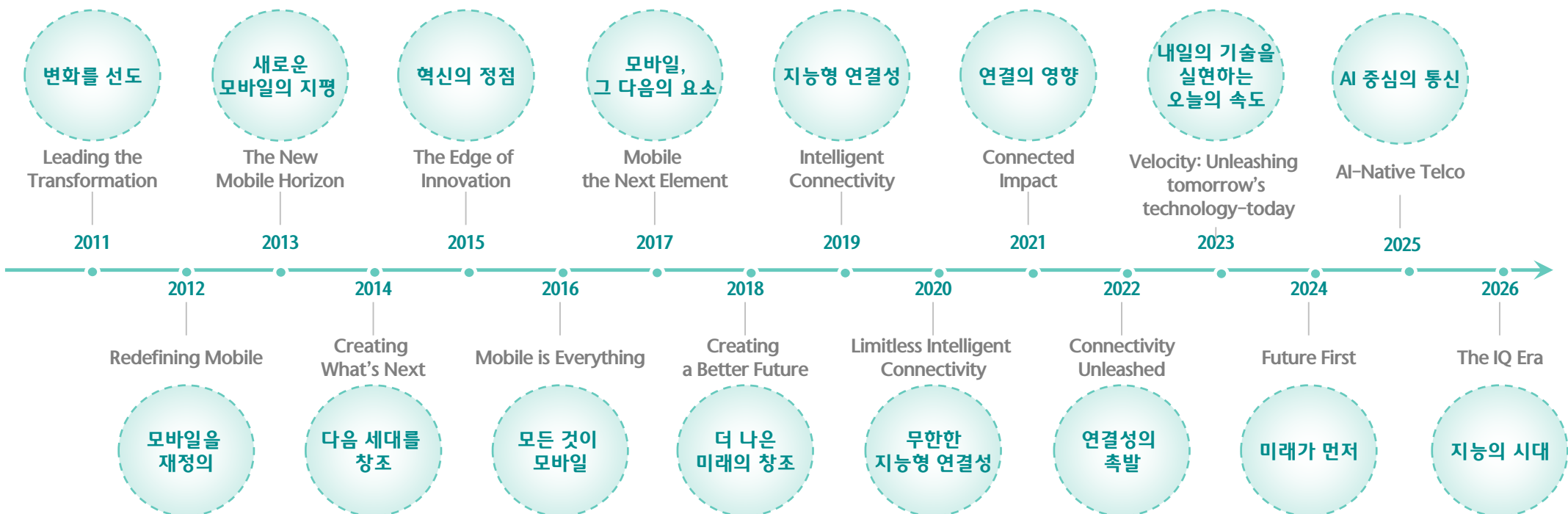
1. History & Overview	3
2.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신	7
3. AI Agent 스마트폰	13
4.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글라스	21
5. Connected Mobility	25
6. UAM and Robot	34
7. Team Korea: 한국관 기업 소개	47

동 보고서는 하나증권과 KOTRA 협업으로 해외전시회를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투자 및 진출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MWC의 최근 핵심 주제들은 AI와 Connectivity

- 2010년 이후 MWC를 관통하는 주요 트렌드: ‘Next Generation’, ‘확장’, ‘AI’, 그리고 ‘Connectivity’
- ‘LTE’, ‘5G’ 등 모바일 기술 중심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기반으로 ‘Connectivity’로의 확장에 초점
- 2026년에는 모바일 전시회를 넘어 AI, 양자 컴퓨팅, NTN 등 미래 기술과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다루는 Connectivity 박람회 지향

MWC의 핵심 주제 흐름



자료: 하나증권

1. History & Overview

MWC26의 슬로건은 지능의 시대 (The IQ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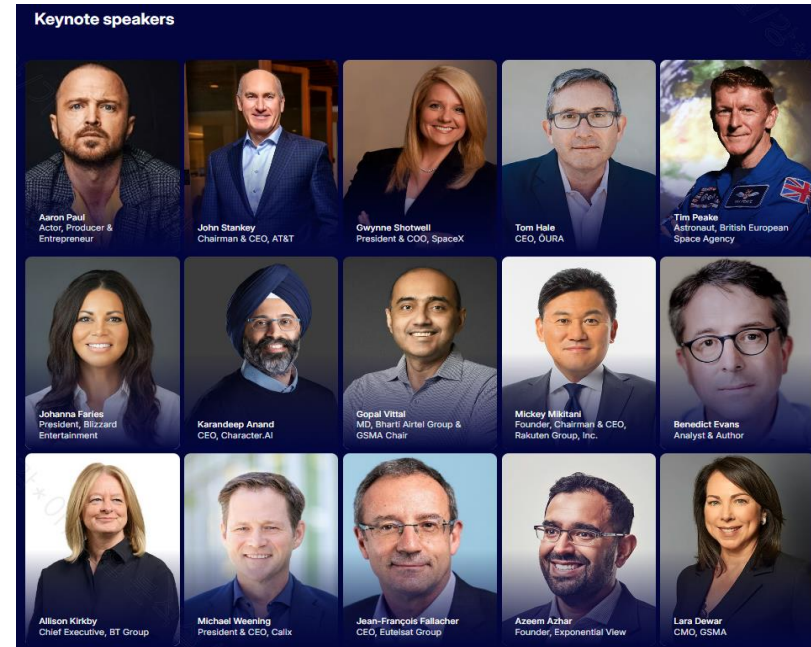
- MWC26는 3/2~3/5일 7.3만평 전시장에서 개최. 205개국에서 온 2,900개사가 전시 부스에 참여. 총 참관객은 11만명으로 집계
- Keynote Speakers를 포함한 다양한 컨퍼런스 개최. 총 1,200명의 Speaker와 Panel들이 다양한 주제와 연관 산업 컨퍼런스에 참여
- 슬로건은 “The IQ Era”. 6가지 주제는 AI 4 Enterprise, AI Nexus, Connect AI, Game Changers, Intelligent Infrastructure, Tech 4 All

MWC26의 컨퍼런스 모습



자료: GSMA, MWC26

MWC26의 Keynote Speakers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MWC26 현장은 ‘AI Is Everywhere’

- 과거 MWC가 네트워크 속도 및 스마트기기 신제품의 전시였다면, MWC26은 네트워크가 기본 인프라로서 결합하여 실제 여러 산업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증형 전시가 주력. 즉, 모든 기업들이 ‘AI의 실체화’를 주력으로 전시
- 즉, 하드웨어 사양보다는 'AI가 내 삶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실제로 바꾸는가'라는 실용적 가치에 초점

MWC26의 주요 전시 특징

주요 특징	내용	주요 기업들
에이전틱 AI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단말 및 서비스	삼성, SKT, KT, LGU+, Honor, DT, 구글
6G 및 위성 통신(NTN)	6G 기술 및 위성-지상을 통합하는 연결 솔루션	SpaceX, SKT, ZTE, NTT Docomo
피지컬 AI & 로봇틱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가 실생활 및 산업에 적용된 사례	샤오미, 지멘스, KT, 화웨이, 아너, 애지봇
AI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계 단계부터 AI 결합되어 장애 예측/수정, 지역별/시간대별 신호 배분, 에너지 최적화 등 자율 네트워크	엔비디아, 에릭슨, 화웨이, SKT, 노키아
보안 및 기업형 솔루션	국가/기업별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온디바이스 AI 및 인프라, 보안 중심의 기업형 솔루션	MS, AWS, SKT, 화웨이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The IQ Era’의 의미

- “The IQ Era”는 단순히 기술적인 연결의 시대(The Connectivity Era)을 넘어 ‘연결된 모든 것에 지능이 흐르는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 즉, ‘얼마나 빠르고 넓게 연결하느냐’를 넘어 연결된 망 위에서 ‘어떻게 스스로 사고하고 최적화하느냐’에 집중
- 네트워크/단말기/서비스 등이 모두 지능을 갖추게 되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지능형 파트너’ 역할로 진화. 모바일을 넘어 제조/물류/모빌리티 등 모든 산업군에 AI라는 IQ가 적용되면서 산업 지능화를 구현. 이를 통해 여러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 기술의 역할

연결의 시대를 넘어 지능의 시대로의 전환

구분	The Connectivity Era	The IQ Era
핵심 키워드	Connectivity	Intelligence
주요 가치	연결의 속도와 범위	지능의 깊이와 실행의 효율성/자율성
주요 기술	스마트폰/기기 HW, 초고속망, 클라우드 등	AI-RAN, AI Phone, 6G, 에이전틱 AI
기업군	통신사/휴대폰 제조사 중심	반도체/빅테크, 모빌리티, 우주 등 다양
기술 경험	화면 속 영상 시연	물리적 장치와의 상호 작용
기술의 목적	기술적 진화를 위한 기술	실용적이고 책임감있는 AI 기술
단말기 성격	정보 검색 및 소통 도구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인프라 성격	중앙 집중식, 수동 최적화, 데이터 이동	분산형, 자율 최적화, AI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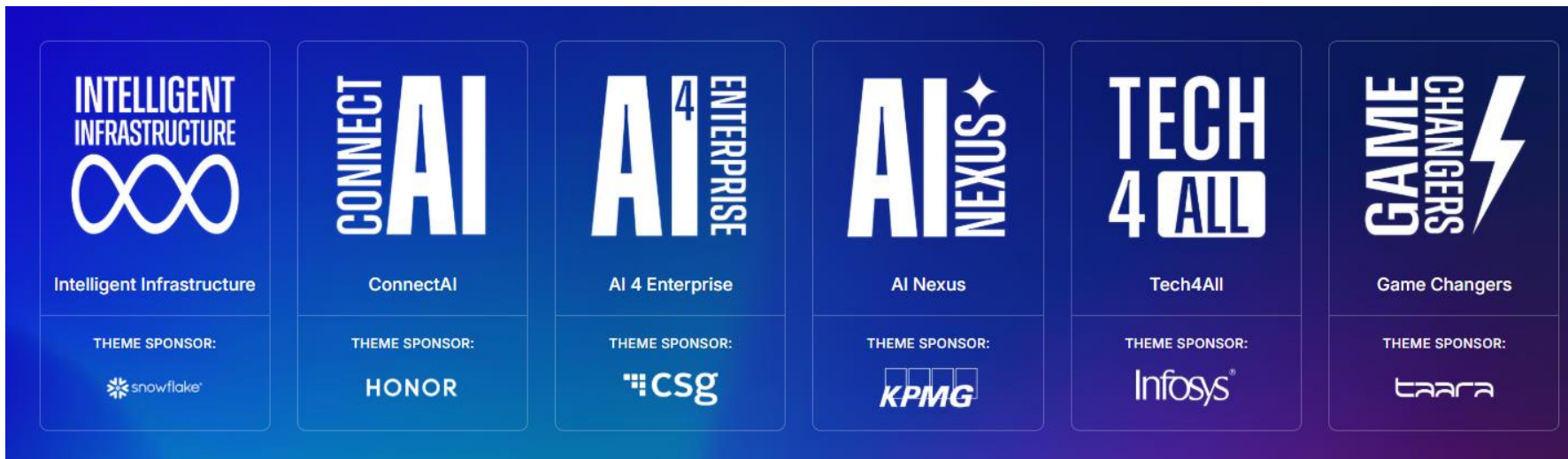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2.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신

MWC26의 6가지 핵심 주제들

- 1) **Intelligent Infrastructure**: AI 기반 네트워크가 스스로 최적화하고 유지보수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면서 효율성 및 확장성 향상
- 2) **Connect AI**: 네트워크 인프라와 AI가 결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 및 가치를 창출
- 3) **AI 4 Enterprise**: 제조/물류/핀테크 등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 등을 실전 배치하여 생산성 극대화
- 4) **AI Nexus**: 개인/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모든 기기가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AI 생태계 구축. 정책 및 규제의 필요성도 증가
- 5) **Tech 4 All**: 기술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인류가 공유하기 위한 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의 역할
- 6) **Game Changers**: 피지컬 AI, 로봇틱스, 양자 컴퓨팅, 우주 네트워크, 모빌리티 등 기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미래 파괴적 기술

MWC26의 6가지 핵심 주제들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Connected Industries: 지능형 연결로 완성되는 산업 혁신

- 2030년까지 통신사들에게 클라우드, AI, 사이버보안 등과 같은 통신사 인접 서비스를 통해 약 1조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기대
- 1)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지능형 제조. 자재 조달, 가공과 조립, 물류 등 공급망 전반에서 모바일 기술이 생산성 혁신의 역할
- 2) Smart Mobility: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전반에 걸쳐 효율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의 구현
- 3) Fintech and Commerce: 클라우드, AI, 5G 및 신규 플랫폼 모델 등이 경쟁을 이끌고, 시장진입 비용을 낮추며, 혁신적인 고객 제안
- 4) Sports and Entertainment: 스마트 경기장과 원활한 팬 여정, 몰입형 콘텐츠와 새로운 상업 모델 등 팬들의 경험을 만족시키는 기술

Connected Industries: Manufacturing



자료: GSMA, MWC26

Connected Industries: Smart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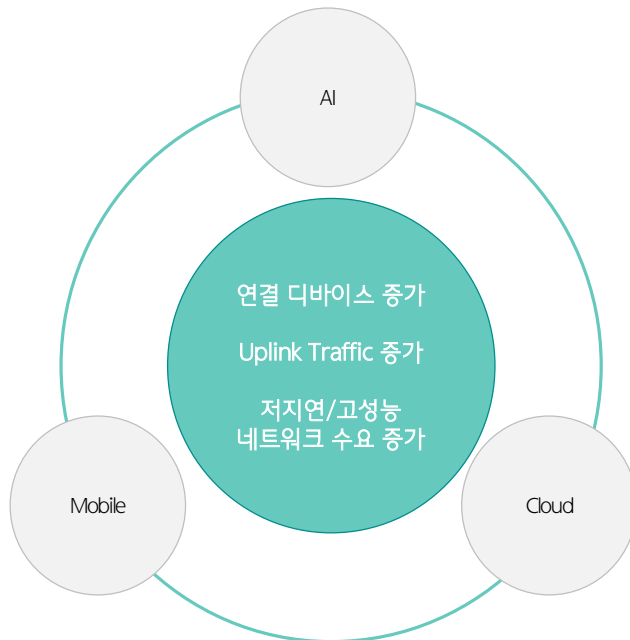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2.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신

AI for Telco, Telco for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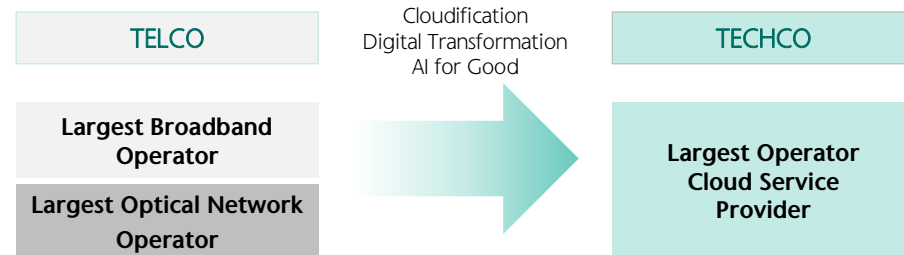
- MWC26은 AI, Cloud, Mobile의 결합을 통해 지능(Intelligence)이 네트워크 및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이는 연결 디바이스 증가, Uplink 트래픽 증가, 저지연 고성능 네트워크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AI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도 AI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 증가
- 통신사는 AI 도입을 통해 내부 운영을 효율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AI 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



자료: MWC26, Ericsson, 하나증권

China Telecom의 AI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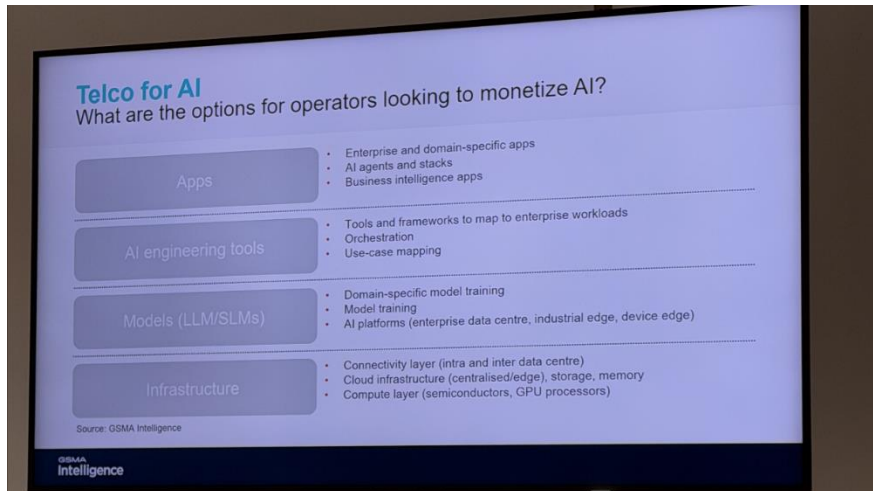
자료: MWC26, China Telecom, 하나증권

2.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신

Intelligent Infrastructure 개념의 부각

- 네트워크 설계 단계부터 AI가 통합되어 스스로 장애를 예측/복구하고 트래픽에 따라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등 통신 인프라가 단순한 연결망이 아닌 AI/SW로 제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변모
- 예를 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 자율주행 등 안전 필수 데이터에는 고대역폭과 우선 순위를 할당하고 인포테인먼트 데이터와 분리 운영함으로써 통신 부하 상황에서도 차량의 핵심 기능 안전성을 보장

통신사들의 AI 수익화 방안



자료: GSMA, 하나증권

MWC26에서 AI-RAN 전략을 발표하는 Nokia



자료: 뉴스1

엔비디아의 AI-RAN 전략

- 엔비디아는 AI Computing 시장을 데이터센터 외부로 확장하기 위해 통신/인프라 기업과 협력
- 기존 클라우드 중심의 고객층을 통신사/통신장비사까지 확대하고 Edge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
- 노키아/에릭슨/BT/SKT/SB 등이 AI와 무선망을 결합한 AI-RAN Alliance 결성
- AI-RAN은 통신 기지국 장비(RAN)에 AI를 적용하여 통신만 하던 기지국을 AI 모델 학습/추론까지 가능한 전략적 가치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 AI for RAN: 성능 최적화. 설계부터 AI가 내장된 'AI-Native'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지국 스스로 전파 방해를 피하고, 전력 소비를 줄여 운영비를 낮추며, 통신 품질을 실시간으로 높이는 기술
 - (2) AI on RAN: 서비스 제공. 데이터를 멀리 있는 중앙 데이터센터까지 보내지 않고, 가까운 기지국에 남은 연산 능력을 이용해 주변 사용자에게 실시간 번역, 자율주행 판단 보조, 로봇 제어 등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AI 서비스(Edge Computing)를 제공
 - (3) AI and RAN: 자원 공유. 기지국 장비와 AI 서버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하드웨어(주로 GPU 기반)에서 통신 처리와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여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절감. 남은 연산력을 유로로 대여하는 AlaaS 가능
- 통신사는 AI-RAN 구축을 통해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됨 → 네트워크의 수익화 수단으로 활용 가능

손이 달린 AI Agent로 진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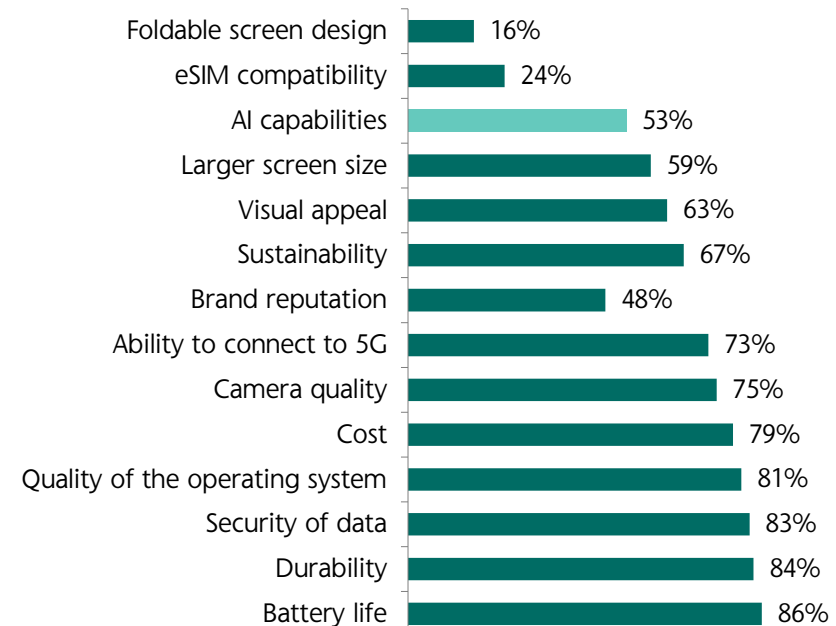
- 스마트폰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진화된 Assistant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지능화를 선보임
-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배터리, 지속성, 보안, OS 퀄리티 순이며 AI 기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이 필요
- 스마트폰의 AI 기능은 단순히 질문에 답변해주는 Message Level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Action Level로 진화중이며 향후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여러 앱을 자동 실행하는 AI agent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

스마트폰 기업별 AI Agent

SET 기업	AI Agent	협력/AI 모델
삼성전자	Galaxy AI + Google assistant	Google Gemini Perplexity AI
Apple	Apple Intelligence + Siri	Open AI ChatGPT Alibaba(중국 시장용 AI 모델)
Huawei	Xiaoyi AI assistant	Huawei Pangu LLM Baidu Ernie, DeepSeek
Xiaomi	Hyper AI	Xiaomi 자체 LLM Google Android ecosystem Baidu/Alibaba 협력
ZTE	AutoGLM	Zhipu AI ByteDance Duobao
Honor	Magic Portal	Google Android ecosystem Baidu

자료: MWC26, 해당 기업, 언론 보도, 하나증권

스마트폰 교체 시 주요 고려 요인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궁극적 목표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Agent

- AI Agent는 업무 수행 기능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
- AI Assistant는 Q&A 수준의 Message-Level에서 Action-Level로 진화 중. 궁극적 목표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Autonomous 단계로 넘어가는 것
- 향후 스마트폰 AI 경쟁은 복수의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workflow를 자동화 할 수 있는 Agent 역량이 핵심이 될 전망

AI Agent 진화 단계

단계	개념	핵심 기능
Message-level	질문에 답하는 AI	번역, 요약, 텍스트 생성, Q&A
Task-level	앱 내 단일 작업 수행	일정 등록, 사진 편집, 음성→텍스트
Action-level	실제 행동 실행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예약
Workflow-level	여러 앱을 연결	메일→캘린더→지도 연동
Autonomous	목표 기반 자동 수행	계획 생성, 반복 업무 자동화

자료: MWC26, 하나증권

스마트폰 기업별 AI Agen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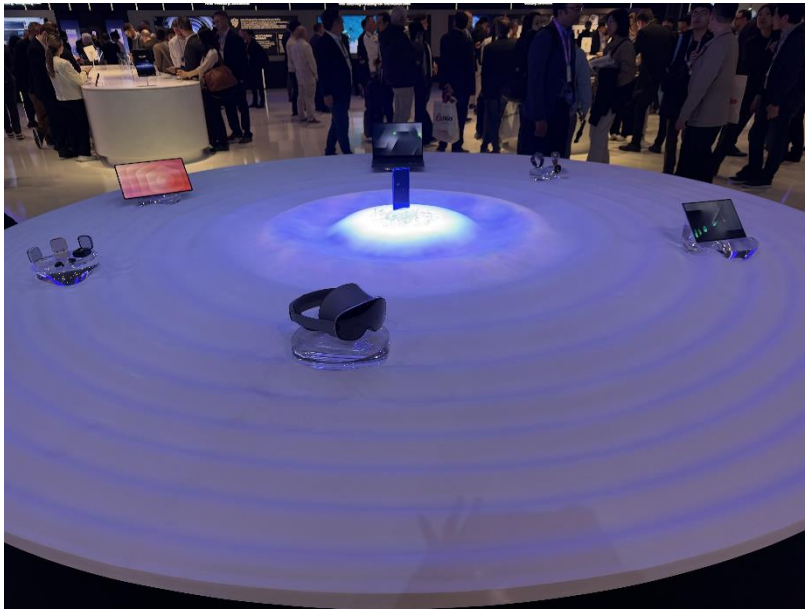
SET 기업	AI Agent 단계
삼성전자	Task → Action
Apple	Task → Action
Huawei	Task → Action
Xiaomi	Action
ZTE	Action
Honor	Action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삼성전자: Galaxy S26 하드웨어

- 삼성전자는 MWC26에서 Galaxy S26를 포함해 Galaxy Trifold, Galaxy XR, 태블릿, 버즈4 시리즈 등을 전시해 Hardware ecosystem을 강조
- Galaxy S26 Ultra는 맞춤형 Snapdragon 8 Elite Gen 5 칩을 채용했으며 카메라는 넓어진 조리개로 노이즈를 줄인 Nightography 비디오, Super Steady 수평잠금 모드 등의 기능을 추가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라인업



자료: MWC26, 삼성전자, 하나증권

Galaxy 26 시리즈



자료: MWC26, 삼성전자, 하나증권

삼성전자: Galaxy S26 AI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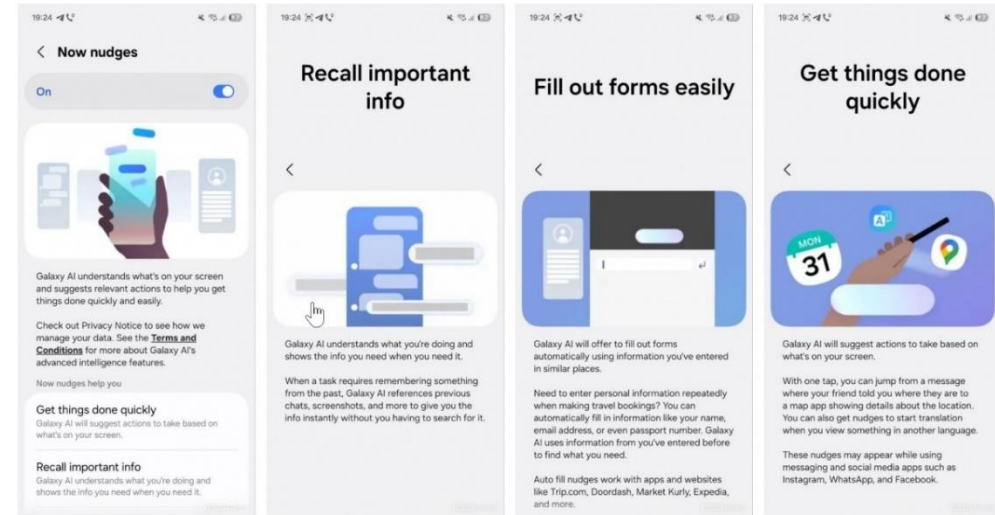
- Galaxy AI 외 Gemini·Perplexity 등 서드파티 에이전트를 통합해 Agent entry point를 확대했으며 Now Nudge/Now Brief 같은 컨텍스트 기반 AI 서비스를 강화. Photo Assist/Creative Studio를 통한 이미지 생성·편집, Privacy Display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 탑재
- 구글과의 협업: Gemini 앱에서 측면 버튼 길게 눌러 멀티스텝 작업을 처리하고, Circle to Search의 멀티 객체 인식과 가상 착용 시뮬레이션 제공

갤럭시 S26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자료: MWC26, 삼성전자, 하나증권

갤럭시 Now nudge 기능



자료: 삼성전자, Android Authority, 하나증권

Huawei: AI Stack 전 영역의 수직 계열화 구축

- Huawei는 MWC26에서도 최대 규모의 전시를 개최
- Huawei는 통신 인프라 전반에 AI를 적용해 비용 효율화 및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AI-Native Network 전략 강조
- Huawei Mate80은 Kirin 9030 Pro를 탑재했으며 XMAGE 이미지센서로 고동적 범위(HDR)와 망원 매크로 동영상 촬영을 강화. 26년 5월 부터 Harmony OS 기반 음성비서 Celia 탑재 예정

Huawei 전시 부스



자료: MWC26, Huawei, 하나증권

Huawei가 적용 예정인 Celia



자료: MWC26, Huawei, HuaweiCentral, 하나증권

Xiaomi: 스마트폰x전기차x가전 생태계 구축

- Xiaomi는 MWC26에서 자체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 Xiaomi MiMo가 적용된 스마트폰, 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 종합 포트폴리오 전시
- Xiaomi 17 시리즈는 Qualcomm Snapdragon 8 Elite Gen 5을 채용했으며 후면에 Dynamic Back Display를 탑재해 실시간 번역,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
- Xiaomi는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스마트폰 AI Assistant ‘miclaw’ 발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ction Level 단계의 Agent일 것으로 추정

Xiaomi MWC26 부스



자료: MWC26, Xiaomi, Newstap, 하나증권

Xiaomi 17 Pro max



자료: MWC26, Xiaomi, 하나증권

3. AI Agent 스마트폰

ZTE: AI-Native 스마트폰 nubia M153

- ZTE는 AI-Native 스마트폰 컨셉의 nubia M153을 공개했으며 ByteDance와 협업한 Doubao AI 어시스턴트를 탑재
- Doubao AI는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 예약, 제품 구매 실행 등 상황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간 작업 가능한 Action Level Assistant를 구현
- nubia M153은 Snapdragon 8 Elite 프로세서를 채용했으며 16GB RAM과 512GB 저장공간을 탑재

ZTE nubia M153



자료: MWC26, ZTE, 하나증권

Nubia M153에 탑재된 Doubao AI 어시스턴트



자료: MWC26, ZTE, 하나증권

Apple: Apple Intelligence 전략

- Apple Intelligence는 하이브리드 모델 구조를 채택해 경량화된 온디바이스 모델과 PCC(Private Cloud Compute)에서 구동되는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함. 선택적으로 Chat GPT를 사용해 모델 성능을 확보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작업은 내부에서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은 자체 서버를 이용하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보안을 강화
- 경쟁사와 가장 큰 차별점은 AI를 OS 기능으로 통합해 OS 자체가 AI Agent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디바이스 내에서 구동되는 Apple Intelligence



자료: Apple, 하나증권

Apple은 Privacy-first를 강조



강력한 역량과 함께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Apple Intelligence. 이 시스템은 온디바이스 처리를 통해 iPhone, iPad, Mac의 근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해당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죠. 또한 혁신적인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에 Apple Silicon으로 구동되는 보다 큰 규모의 서버 기반 모델을 활용해 더 복잡한 요청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지요.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 ✓ 사용자의 데이터는 결코 저장되지 않습니다.
- ✓ 요청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 Apple, 하나증권

4.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대두

- Meta, Google, Apple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선점을 위해 스마트 글라스 개발 중
- 스마트 글라스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보다는 AI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될 전망
- 스크린 기반 인터페이스를 가진 스마트폰과는 달리 스마트 글라스는 음성, 시야, 상황을 기반으로 AI를 현실의 백그라운드 형태로 제공해 디바이스를 의식하지 않고 AI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빅테크 기업들의 스마트 글라스 개발 현황

제품명 (기업)	주요 기능	비고
Meta-Rayban Display (Meta)	사진/영상 촬영, AI Agent, 음악/통화, 번역	손동작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Neural Band와 함께 사용
Apple AR Glass (Apple)	AR 디스플레이, 공간 컴퓨팅, AI Agent (예상)	개발 단계
Android XR Smart Glass (Google)	AR 디스플레이, AI Agent, Navigation, 번역	26년 출시 목표 삼성/퀄컴과 협력 Gemini 탑재 예정
Qwen AI Glasses G1/S1 (Alibaba)	사진/영상 촬영, 번역, AI Agent, Navigation	자사 AI 모델 Qwen 탑재 교체형 배터리

자료: MWC26, 하나증권

스마트폰 vs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폰	스마트 글라스
인터페이스	스크린 중심	스크린 소멸 Context(음성, 시야) 중심
경험	손 안의 세상	착용하는 지능 (Hands-Free)
연결	데이터 연결	사람 연결
UX	고개 숙임	시야 기반 자연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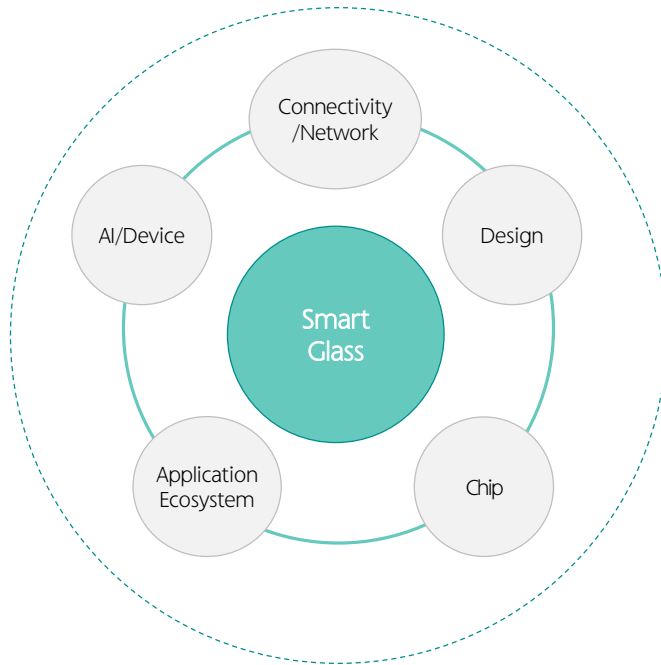
자료: MWC26, 하나증권

4.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대중적 보급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하드웨어 성능 향상이 필요

- 스마트 글라스는 디바이스, OS, 어플리케이션, 반도체, 통신, 디자인 등이 결합된 복잡한 생태계로 구성
- 대중적 보급을 위해서는 초저전력 반도체, 초저지연 네트워크 인프라, 배터리 효율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MWC 2026 스마트 글라스 세션 스피커들은 실시간 번역, 청각 보조,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의 Use case를 언급

스마트 글라스 생태계



자료: MWC26, 하나증권

스마트 글라스 Use Case

	현재	스마트 글라스 착용 시
실시간 번역	언어 장벽으로 식당 주문 혹은 대화에 어려움	실시간 번역을 제공해 상대방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
청각 보조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혹은 휴대 폰 자막 앱을 통해 청각 보조	시야 안에 실시간 자막을 표시해 상대방 얼굴을 보며 대화 가능
산업 생산성 향상	설비 설치 작업 및 원격 의료	작업 가이드 overlay 혹은 전문가가 원격 현장작업 지원

자료: MWC26, 하나증권

4.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글라스

Meta의 Meta Ray-ban Display

- 25년 9월 출시된 Meta Ray-ban Display는 Llama 3 기반 AI로 사진/동영상 촬영, 번역을 수행
- Omnivision의 단일 패널 풀컬러 LCoS, Snapdragon AR1 Gen1 및 12MP 카메라 등이 탑재
- Neural Band를 통해 근전도 신호로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인식해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Meta Ray-ban Display



자료: MWC26, Meta, 하나증권

Meta Ray-ban Display



자료: Meta, 하나증권

4.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스마트 글라스

Qwen의 'S1'과 'G1'

- Alibaba 산하 Qwen은 알리바바 자체 LLM Qwen 3.5기반의 S1과 G1 공개. S1에는 2개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G1은 디스플레이 미탑재
-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6개의 마이크(골전도 마이크 1개 포함), 교체형 배터리, Snapdragon AR1, 12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등의 하드웨어 특징은 유사한 것으로 파악. 특히 스마트 글라스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터리 문제를 교체형 배터리로 해결했다는 점이 특징

Qwen 현장 부스 전경



자료: MWC26, Qwen, 하나증권

Qwen S1 실물



자료: MWC26, Qwen, Cnet, 하나증권

SDV 시대로의 전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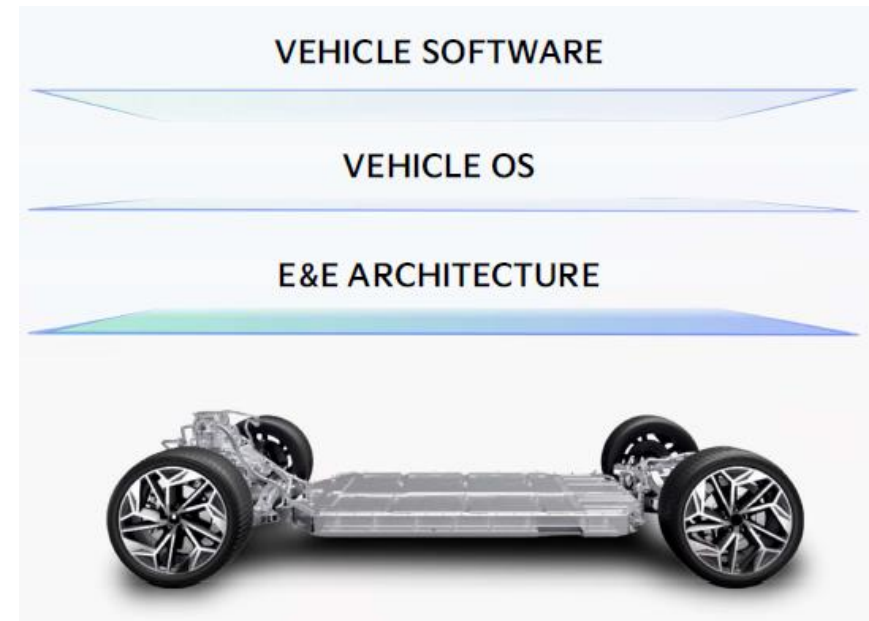
- 자동차 탑승객의 경험은 과거 HW 성능으로 정의 vs. 지금은 SW의 역할이 점점 높아짐. SW Defined Vehicle, 즉 SDV로 진화
- 차량의 기능/성능이 기계적 HW가 아닌 HPC/SW에 의해 정의/제어되는 자동차. 특히, HW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더 큰 의미
- SDV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 EE 아키텍처와 Vehicle OS, 그리고 외부 연결성(V2X, 5G/6G)을 통한 OTA 기능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

SDV의 가치



자료: 현대차

SDV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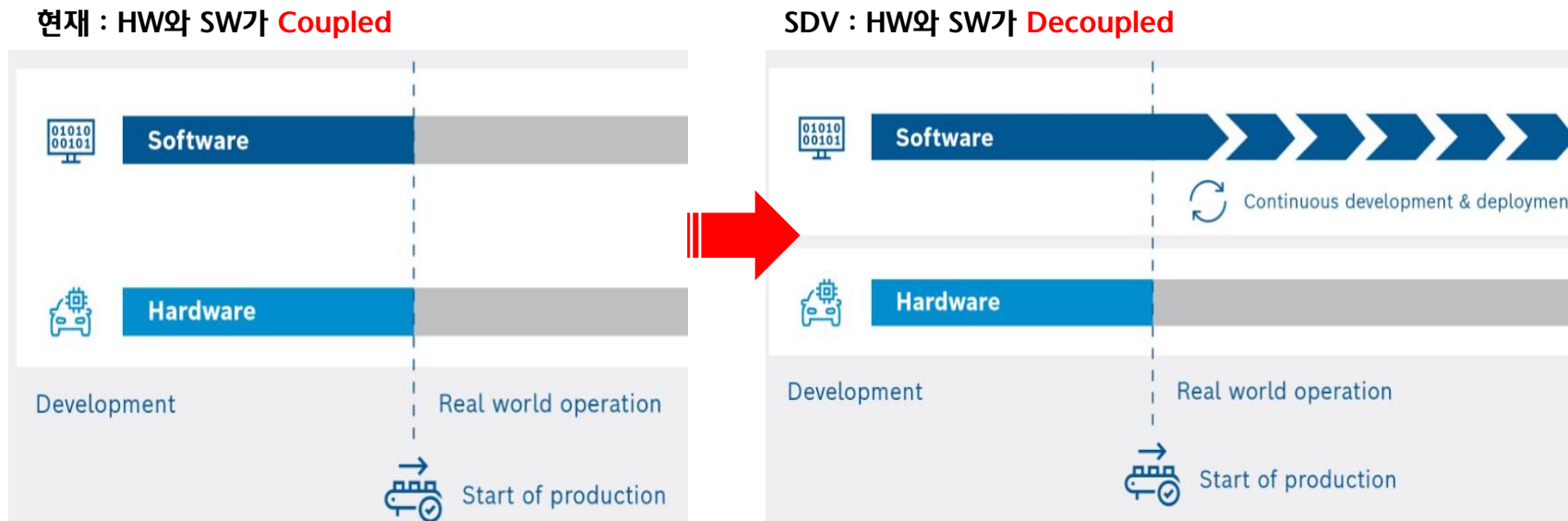


자료: 기아

HW/SW 디커플링을 통한 유연한 아키텍처의 중요성

- 자동차 성능이 출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 맞춤형 최적화될 수 있음을 의미 → “The AUTOMobile becomes the autoMOBILE”
-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가치 창출이 기존에는 차량 판매시 대부분 결정되었다면, SDV는 SW 구독과 업데이트로 지속 창출 가능
- 이는 차량 개발 단계부터 HW와 SW가 분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개발/테스트/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

탑승객 경험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성능 최적화의 개념



자료: Bosch, 하나증권

SDV를 넘어 AIDV로의 발전

- 이제는 SDV를 넘어 AIDV(AI-Defined Vehicle)의 개념까지 발전. SDV라는 기반 위에 AI가 SW 기능의 핵심을 좌우하는 자동차
- 단순히 정해진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넘어, AI가 주행 데이터와 운전자 습관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상황에 맞게 최적화
- 예를 들면, Agentic AI를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 배터리 상태, 주행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개인화된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설정하고, 차량내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해 최상의 탑승 경험을 제공하며, 비상시 운전자의 평소 주행 습관과 전방 도로의 미끄러움 정도를 미리 판단하여 사고가 나기 전에 최적의 제동 타이밍을 제어하는 등의 역할

SDV와 AIDV의 개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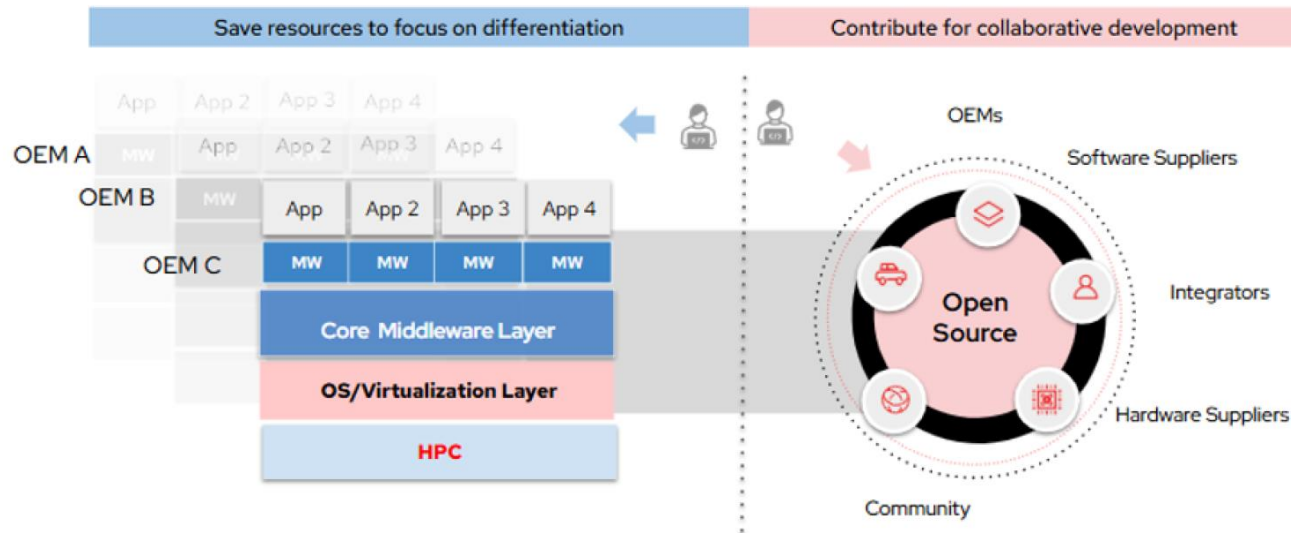
구분	SDV	AIDV
용어	SW-Defined Vehicle	AI-Defined Vehicle
개념	HW가 아닌 SW가 차량의 기능과 가치를 결정	SDV 기반 위에 AI가 핵심이 되는 차량
의사결정	코드 기반의 로직(Rule-Based)	Data 기반의 추론/판단(Learning-Based)
업데이트	제조사가 배포한 패치를 업데이트	실시간 Data를 학습하여 자율 적응/학습
인지	센서 Data의 수집/반응	맥락을 이해하고 의도 파악
개인화	사용자가 설정한 옵션값 적용	사용자 습관을 분석하여 맞춤형 제안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AI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변화까지 유발

- AI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은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제조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단축. 기술/DB를 사전 학습한 AI Agent가 엔지니어 요구에 즉각 대응. AI가 CAD/코드 생성 등 보조하면서 엔지니어는 창의적 설계에 집중. 전 과정의 Data와 운전자 습관까지 AI 모델이 스스로 학습/분석하면서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와 불량률 최소화, 능동적 품질 관리 등을 구축
- 오픈 소스 및 표준화된 플랫폼(ex) SOAFEE) 등을 활용하여 개발 중복을 피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성숙도를 함께 높이는 전략도 고려. 자동차 기업들은 SW 아키텍처 설계와 비전을 소유하고, 생태계를 조율하는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진화

오픈 소스와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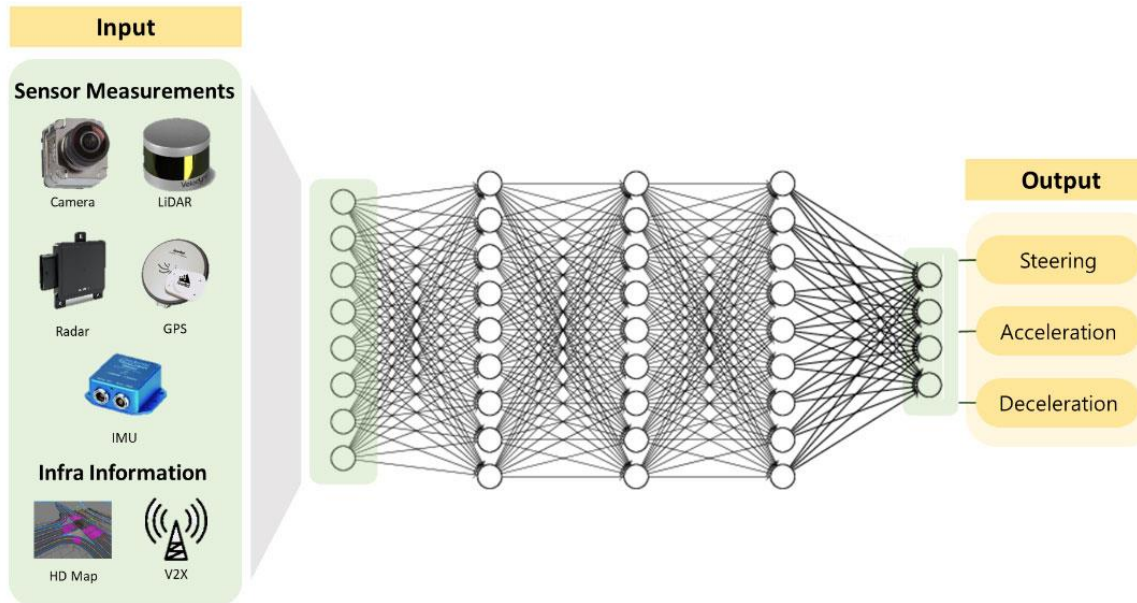


자료: SOAFEE

AI 모델을 활용한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 모듈라 방식: Rule-Based. 주행 과정을 인간 사고방식에 따라 독립적 모듈로 나누고, 정해진 규칙과 알고리즘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장점은 신뢰성/안전성 확보 용이. 오류 원인 분석 가능. 단점은 복잡하고(오류 누적), 일반화하기 어려운 Long-tail 발생
- E2E 방식: End-to-End. 입력(센서 데이터)-출력(차량 제어 명령) 사이의 모든 주행 과정을 AI 모델 담당.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어 방식을 AI 모델이 학습. 장점은 시스템 간소화와 확장성, 높은 일반화. 단점은 대규모 데이터 필요 및 미학습 상황

Learning-based E2E 모델



자료: avelab, KAIST

AIDV를 구현하기 위한 Connected Mobility

- 자율주행 기술이 Stand-Alone을 넘어 네트워크와 AI가 하나로 결합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로 진화하는 과정
- 모빌리티가 초연결망(5G-A, 6G, 위성통신)과 결합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의 삶과 밀착된 ‘지능형 이동 경험’을 제공
- 이를 위해 AI-Native Infrastructure의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의 두뇌가 자동차에서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것까지 목표

AIDV는 연결성을 통해 거대한 AI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



자료: TE Connectivity

초저지연 및 끊김없는 연결성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5G-A/6G 등 초저지연 통신은 자율주행차가 주변 인프라(V2X)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각지대 정보를 공유
- 지상 기지국이 닿지 않은 지역에서도 끊김없는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통신과 연결
-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 규격과 로밍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텔레매틱스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신 시나리오



자료: MDPI

MWC26에서 진행된 스타링크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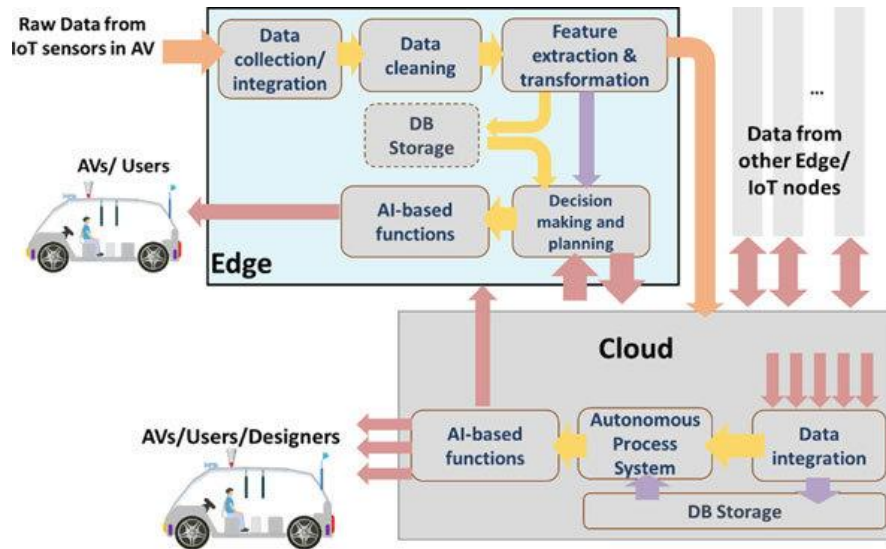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통신 인프라는 엣지 컴퓨팅 기반의 Data 처리

- 차량에서 수집한 어마어마한 양의 실주행 Data를 분석 필요 → 차량 내 과도한 Data 바틀넥을 막고, 멀리 떨어진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처리해 주는 Edge Server 및 Cloud를 연결하고, 이를 OTA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계층적 연산 구조
- 특히, 정보 업데이트 및 교환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져야 순간적으로 판단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및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가
- 즉, 안전과 관련된 제어 기능은 차량 내 HPC와 AI가 처리하고, 복잡한 Data는 통신망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차량의 단가를 낮추면서도 고성능 기능의 구현이 가능

자율주행 기술의 Edge Computing과 Cloud



자료: Hamid Khayyam

자율주행차의 내부/외부 Data 처리 및 의사결정 비교

구분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역할	반사 신경	대뇌
임무	실시간 제어, 안전, 개인정보	학습, 추론, 복잡한 연산
처리 속도	1~10ms	100ms~수초
HW	NPU, 초저전력 가속기	GPU, HBM
네트워크	낮음(오프라인 필수)	높음(5G/6G, 위성)

자료: 하나증권

5. Connected Mobility

MaaS와 수익 모델화에 대한 지속적인 타진

-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AI 결합. 단순 이동수단 통합을 넘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Agent AI 기능으로 AI-Native MaaS 진화
- MaaS가 모빌리티 제조사 영역을 넘어 AI와 초연결 통신망이 결합된 거대한 도시 운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 수익 모델 가능성을 계속 타진: 월 과금 형태의 통합 이동 구독권, FoD, Data Monetization, Enterprise MaaS, AI-RAN 등

스마트카,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



자료: AT&T, 하나증권

2024년 파산한 MaaS Global과 Whim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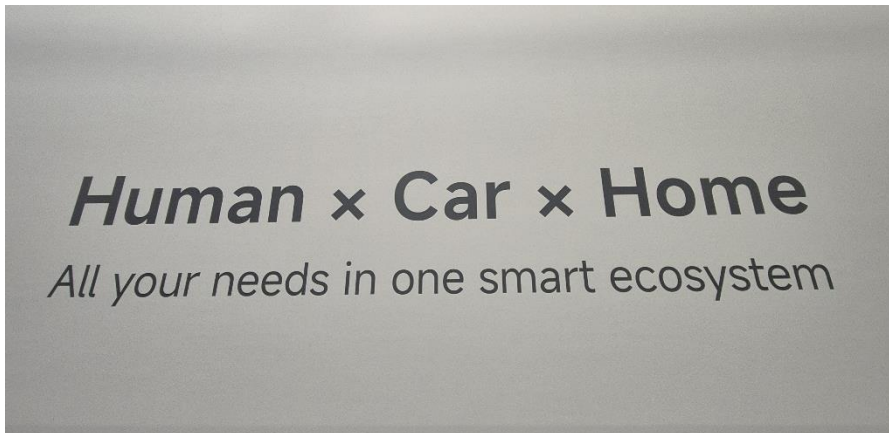


자료: Mobi'watch

자율주행이 연결성과 만나 확장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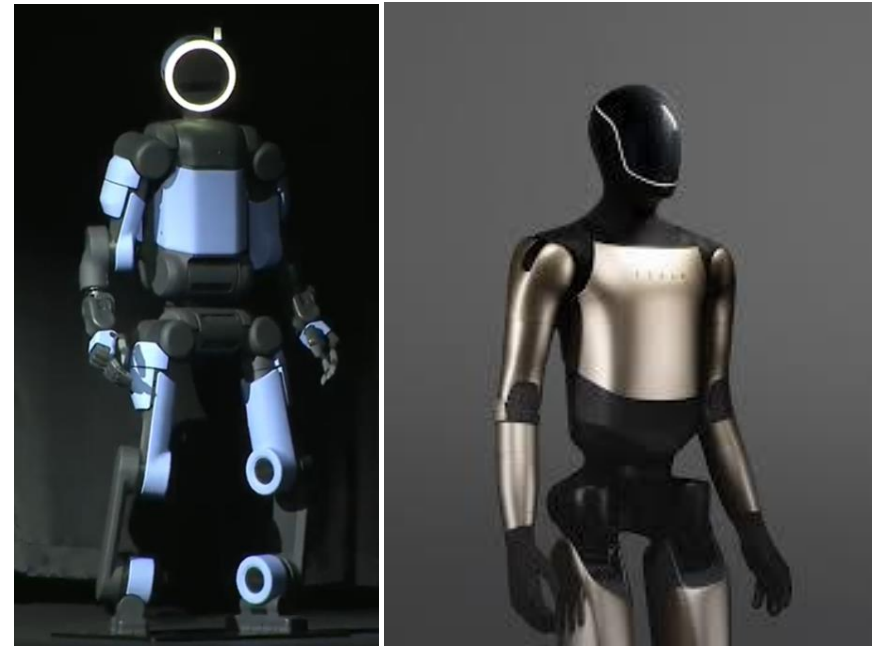
-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를 넘어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
- 교통 및 연관 산업(자동차, 항공, 물류, 공유모빌리티, 모바일 커넥티비티 생태계 등)에 걸쳐 엄청난 기회를 창출
-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 샤오미는 가전/IT 기기에서 전기차/로봇으로 확장, 현대차도 로봇/UAM 등 확장 중

샤오미가 제시하는 Smart Ecosystem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BD의 아틀라스와 Tesla의 옵티머스 로봇



자료: BD, Tesla

규모가 축소된 UAM. 기체를 통한 홍보 단계를 넘어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

- MWC24에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다수의 컨퍼런스와 전시가 있었음. 조비(Joby)와 알레프(Alef)가 eVTOLs(electric vehicle take-off and landing), Skyports는 UAM 이착륙장 인프라를 소개. SKT와 KT 등은 UAM 운영 서비스의 운영 계획과 관련 기술들을 부스 내 전시. SKT는 Joby Aviation과 UAM 기체 실물 모형을 전시했을 정도
- MWC25부터 분위기가 변화. 통신사들의 우선 순위가 기체에서 AI 에이전트와 AI 인프라로 변경. 기체 전시보다는 NTN, UATM 등과 같은 기술/인프라에 대한 전시가 주력. 이번 MWC26에서도 UAM 관련 전시가 추가 축소. 대신 Starlink와 같은 저궤도 위성과 6G 등이 어떻게 UAM의 안전 비행을 보장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 시연과 실제 상용화를 위한 실무적 논의 등으로 진전

MWC24에서 SK텔레콤이 전시했던 UAM 기체인 S4-SKT



자료: GSMA, MWC24, SKT, 하나증권

MWC26에서 CT이 선보인 JOUAV



자료: GSMA, MWC26, CT, 하나증권

UAM의 상업화 속도도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

- UAM이 가진 강점(교통체증 완화, 적은 소음, 기존 항공대비 접근성/투자비용, 친환경성 등)과 고객의 전체 Mobility 여정에서 지연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 하지만, UAM의 기술 및 상업화 속도는 기존 예상보다 지연되는 중. 당초 주요 국가에서 2025년부터 상용화 시작을 기대했으나, 현재는 2027년 이후로 예상. Joby, Archer 등이 미 연방항공청 인증의 최종 단계이나, 개체 안정성과 함께 운항 규칙 등에 시간이 소요. 실제 운항되더라도 서비스 초기에는 적은 인프라 및 비싼 요금 등으로 핵심 거점만을 오가는 셔틀 노선 형태로 운영되고, 본격적인 대중화는 2030년 초중반으로 예상

UAM 고객의 서비스 이용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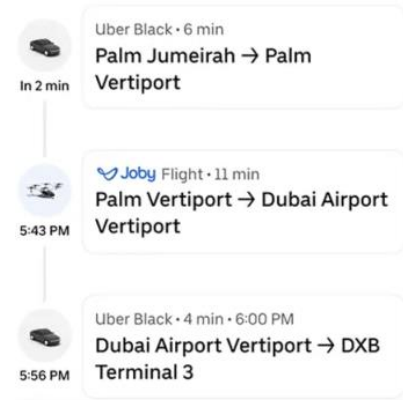


자료: Boeing, 하나증권

Joby와 Uber의 제휴

Fly to the airport in 11 min

Reach DXB Terminal 3 by 6: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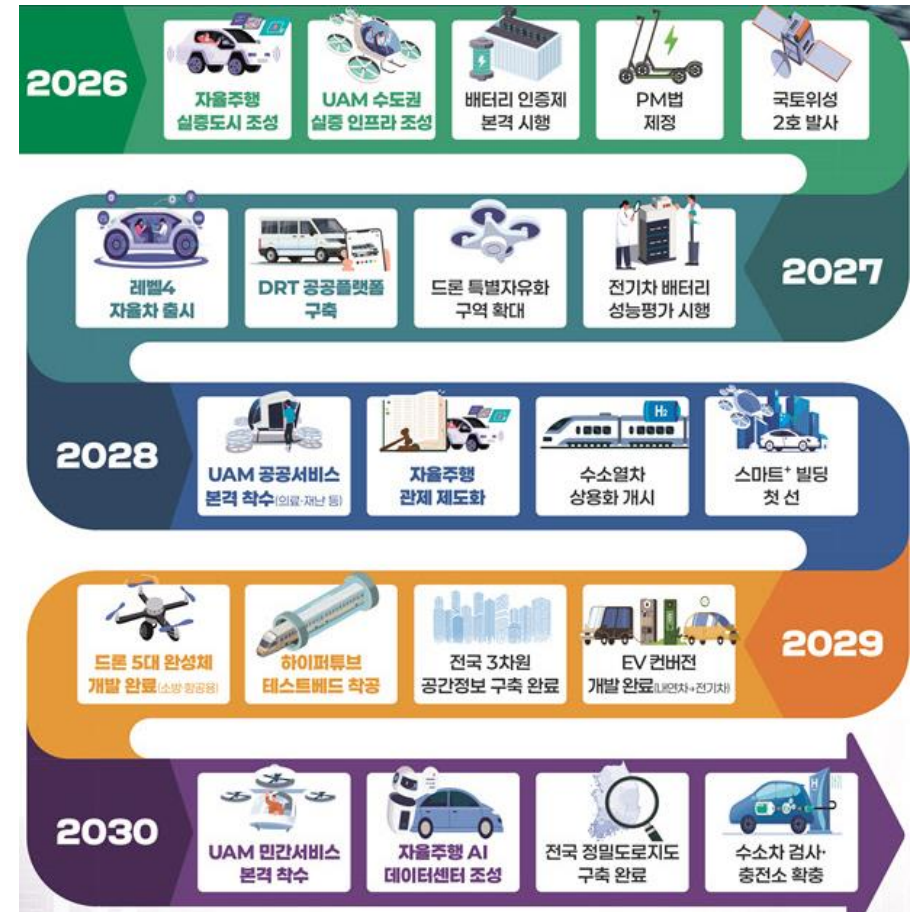


자료: Joby Aviation

한국의 UAM 준비 상황

- 2026년 2월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
 - (1) ~2025년: 고향에서 개활지 테스트. 현재 인천에서 도심 실증 2단계 진행. 도심 환경에서 기체-통신-관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
 - (2) 2026~2028년: 수도권 특정 노선(인천공항-김포공항-여의도 등)에서 제한적 시범 운항. 초기에는 소방/응급의료/재난구조 등 공공 서비스 위주
 - (3) 2029~2030년: 민간 서비스 본격 착수. 카카오T/T맵 등으로 예약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 국산화된 양산형 기체도 본격 투입
- 현재 한국 UAM 시장은 3개의 컨소시엄이 주도. 참여 기업별 기체-통신-인프라 역할을 분담
 - (1) K-UAM 원팀: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현대건설
 - (2) K-UAM 드림팀: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
 - (3) UAM 퓨처팀: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 전체적으로 기존 2025년말 상용화 목표에서 지연되는 중. 이착륙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초기 수익성 모델 등이 과제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모빌리티 로드맵



자료: 국토교통부

빈자리를 채운 로봇

- MWC26에서는 Physical AI의 자리를 로봇이 차지. 애지봇, 유니트리 등과 같은 로봇 회사들이 참여했고, 아너도 자체 개발한 로봇 공개
- 통신사들의 로봇 전시도 활발. 차이나 모바일은 로봇 레스토랑 개념을 전시했고, KDDI도 Avita와 협력해 Hinata라는 로봇을 전시
- 이는 로봇이 통신망 위에서 구동되는 새로운 모바일 단말기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자리

MWC26 내 China Mobile의 로봇 레스토랑



자료: GSMA, MWC26, China Mobile, 하나증권

MWC26 내 KDDI의 Hinata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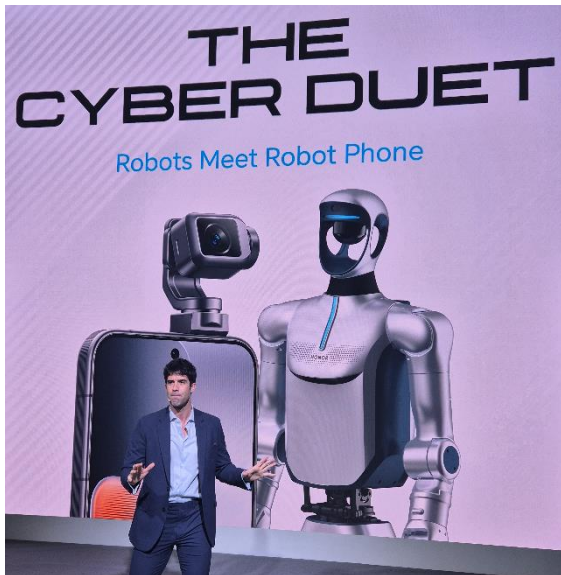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KDDI, 하나증권

로봇 폰(Robot Phone)의 등장

- 중국 아너(Honor)가 스마트폰에 로봇 기술을 접목한 로봇 폰(Robot Phone)을 공개. 후면 내부에 초소형 로봇 팔(Gimbal Arm)을 탑재. 촬영 시 2억 화소 카메라가 상단으로 튀어나와 360도 회전하면서 완벽하게 피사체를 추적하여 촬영의 자동화를 구현. AI가 상황을 판단해 최적의 각도로 촬영하고, 사용자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짓는 등 비언어적 상호작용도 가능
- 기존 스마트폰이 화면 안의 정보에 집중했다면, 로봇 폰은 스스로의 움직임을 가진 물리적 실체를 통해 사용자를 보조하거나 가전을 제어하는 등 소형 휴머노이드 뇌 역할까지 담당할 것을 목표

MWC26에서 선보인 Honor의 Robot Phone



자료: GSMA, MWC24, Honor, 하나증권

Honor Robot Phone의 로봇팔 내장 위치 및 소형 모터들



자료: Honor, <https://shorturl.at/h2pez>

Honor의 알파 플랜

- 로봇 폰은 아너가 MWC25에서 발표했던 ‘알파 플랜(Alpha Plan)’의 일환. 알파 플랜은 회사의 정체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AI 기기 생태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알파 플랜은 3단계로 구성. 첫 번째 단계는 Agent AI에 맞는 지능형 휴대폰의 개발. 두 번째 단계는 Physical AI. MWC26에 나온 로봇 폰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과물. 세 번째 단계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문명
- 아너는 MWC26에서 알파 플랜을 구체화하는 실행축으로서 알파 폰, 알파 스토어, 알파 랩을 공개. 또한 3대 지능의 협업도 강조. 개인형 지능(기기 내 AI), 보편적 지능(클라우드 지능), 엣지 지능(로봇/이동수단)이 결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MWC25에서 발표된 Honor의 Alpha Plan



자료: GSMA, MWC25, Honor

MWC26에서 Update된 Honor의 Alpha Plan 실행축



자료: GSMA, MWC26, Honor

중국 기업들 위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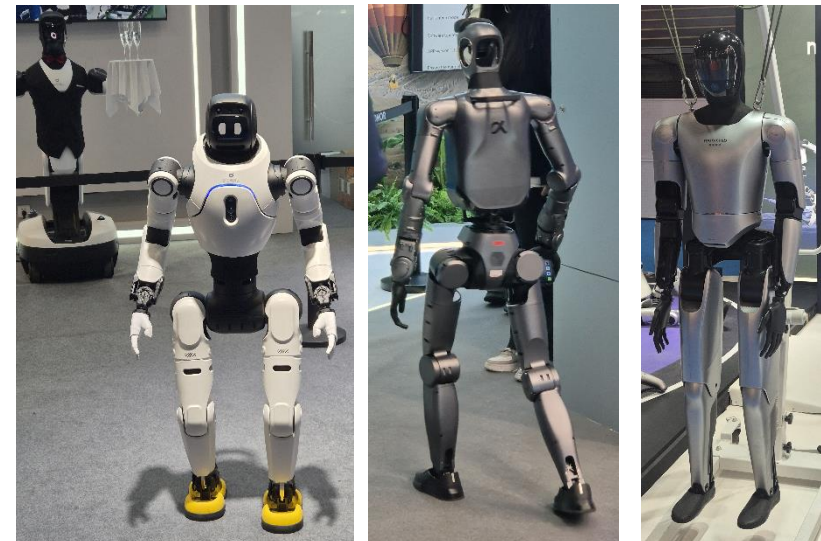
- 미국에서 개최된 CES26에서는 BD의 아틀라스가 주인공이었다면, 유럽에서 개최된 MWC26에서는 중국 기업들 위주로 로봇 전시가 증가. 중국 기업들은 로봇 HW 공급망과 AI 모델의 수직 계열화 등이 강점으로 부각
-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로 애지봇, 유니트리, 푸리에, 아너 등이 제품을 출시. 샤오미는 자사의 가전/전기차와 연동되는 Cyberone 로봇의 비전을 공개(기존 인간-자동차-가정의 스마트 에코 시스템에 로봇을 포함). ZTE는 소형 반력 로봇 전시
- 화웨이는 로봇 두뇌가 되는 Agentic Core 솔루션과 학습용 인프라인 SuperPoD 등을 공개. 차이나 모바일은 군집 로봇 서빙 시스템, 차이나 텔레콤은 애지봇과 협업으로 6G 기반의 원격 제어 로봇, 차이나 유니콤은 지능형 검수 로봇을 전시

MWC26에서 악수하는 스페인 국왕과 Agibot의 A2



자료: Ti Gong of City News Service

MWC26에 전시된 각종 중국계 휴머노이드 로봇들



자료: GSMA, MWC26, 하나증권

통신 기술과 로봇의 융합을 강조

- CES26에서는 로봇이 짐을 옮기고, 옷을 접고, 음료를 서빙하는 등 움직이는 기계로서 지능의 물리적 구현을 강조했다면, MWC26에서는 Embodied AI와 함께 통신 인프라 및 스마트폰 등과 연결된 ‘연결된 지능형 로봇’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강조
- 통신망 자체가 로봇 두뇌이자 신경계로서 5G-A/6G/Agentic AI 등 기술과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지능적 판단을 내리는 환경 구축을 목표
- 일례로 차이나 모바일 부스에서 로봇 레스토랑이 그 개념. 로봇들이 팀을 이뤄 재료를 고르고, 담섬을 서빙하고, 차를 따르는 모습을 연출. 5G/6G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로봇이 협업하는 군집 지능을 시연한 것

LGU+의 Agent AI인 ixi-O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자료: GSMA, MWC24, LGU+

China Mobile의 담섬 서빙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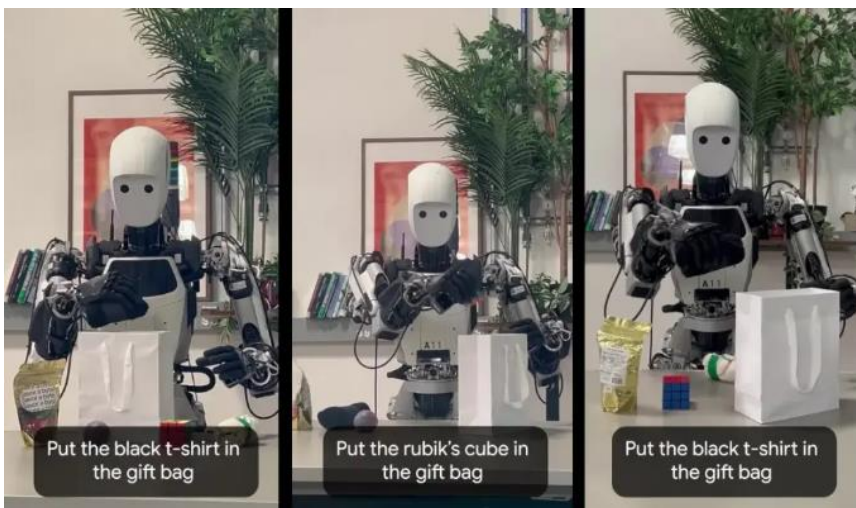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China Mobile

로봇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AI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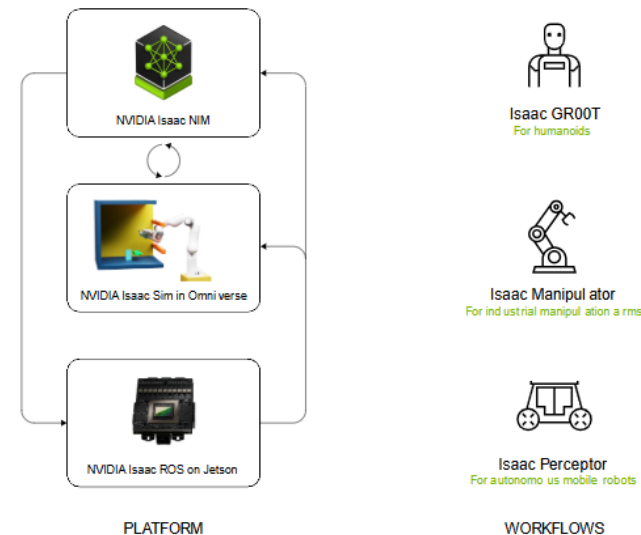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화함에 따라 HW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은 완화. 남은 과제는 정밀 조작, 배터리, 그리고 AI 기술
-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 플랫폼인 Isaac을 제공. Boston Dynamics, Unitree, Sanctuary AI 등이 활용 중
- BD는 최근 구글 Deepmind와 제휴하여 Gemini 로봇틱스를 도입. Gemini 로봇틱스는 이미 Apptronik에서 채택

Gemini Robotics을 도입한 Apptronik의 Apollo 모델



자료: Google Deepmind

엔비디아의 AI 로봇 개발 플랫폼인 Isa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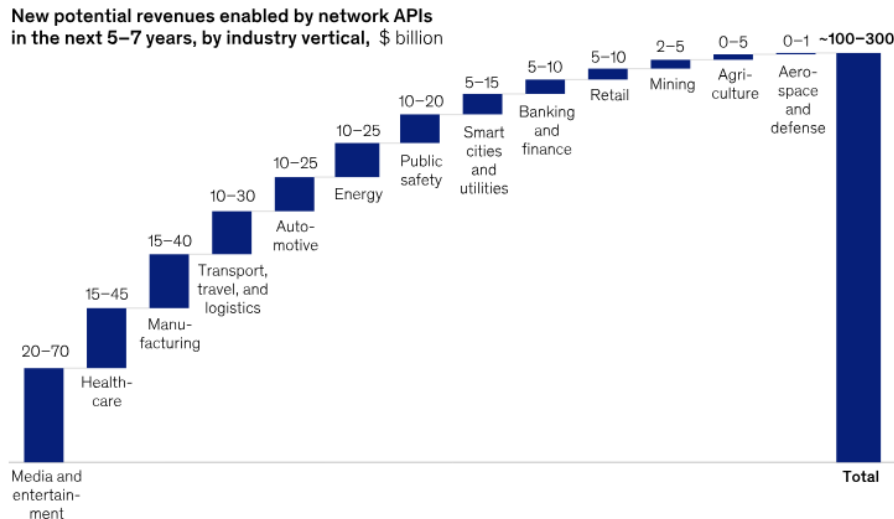


자료: Nvidia

통신사는 로봇이라는 단말기를 통해 폼팩터의 확장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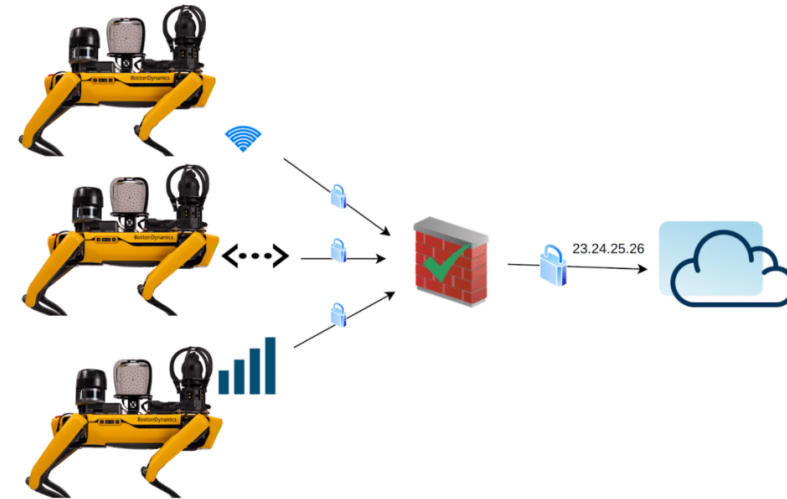
- 통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기지국의 ROI(Return On Investment)를 높이는 것이 중요. 5G-A/6G 기지국의 AI 도입을 통해 Investment를 줄이고(=Intelligent Infrastructure), 로봇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통해 Return을 높일 수 있다면 ROI가 향상
- 자율주행차/로봇과 같은 폼팩터들이 복잡한 주변을 센싱하고 즉각 반응하는데 있어 끊임없고 초저지연의 통신이 필수적. 또한, 로봇 본체에 Embodied AI를 두고, 복잡한 학습과 연산은 통신사 기지국/클라우드에서 담당하면 AI 지능을 서비스(RaaS) 형태로 구독형 매출이 가능. 로봇 사용자들의 물리적 공간 및 행동 Data를 수집할 수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축적 → 5G-A/6G 당위성
- 즉,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폼팩터의 도입을 통해 자산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확장 전략의 일환

향후 5~7년간 Network API들이 창출 가능한 잠재 매출액들



자료: GSMA, McKinsey&Company

BD의 Auto-Connect Network 기술



자료: Boston Dynamics

RaaS 개념으로의 발전 가능성

- 로봇이 공장용을 넘어 레스토랑, 홈케어 등 서비스용/개인용으로의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로봇을 ‘구매’하는 대신 ‘구독’하고 ‘관리’받는 시스템으로 전환
- 로봇은 HW이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지능형 물리적 서비스로서 RaaS(Robotics-as-a-Service) 개념
- RaaS의 이점은
 - (1) 수천~수억원을 호가하는 로봇 HW를 구매(Capex 투자)하는 대신 월 구독(Opex 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 (2) 또한, 로봇 본체는 최소한의 구동부와 Embodied AI만 갖추고, 복잡한 판단과 학습은 기지국 및 클라우드로 연결된 클라우드 AI가 담당
 - (3) HW 유지보수와 SW 업데이트, 그리고 Data 분석 등의 통합 관리도 가능
- 이번 MWC26에서 애지봇은 하루 단위로 로봇을 대여해주는 자체적인 렌탈 프로그램(Qingian Rent)을 공개

Agibot의 Robot 렌탈 서비스를 소개하는 Forbes 기사

You Can Now Rent This Robot For \$1,000 Per Day

By [John Koetsier](#), Senior Contributor. ©...

[Follow Author](#)

Published Mar 02, 2026, 11:53am EST, Updated Mar 04, 2026, 02:25pm EST



The Agibot A2 is now available to rent for almost \$1,000 USD per day.
AGI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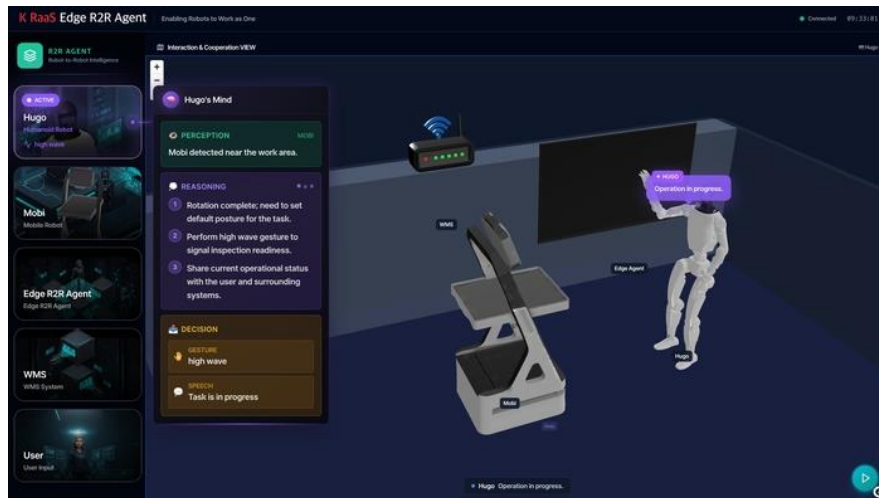
자료: Forbes

6. UAM and Robot

MWC26에서 공개된 한국 통신사들의 로봇 기술 및 서비스

- KT: K-RaaS 공개. 이기종 로봇, 설비,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VLA 에이전트와 Robot-to-Robot 자율 협업 등
- SKT: AI 인프라/모델/서비스 등 27개 아이템의 ‘풀스택 AI’. 디지털 트윈, 로봇 트레이닝 플랫폼, 가정용 반려 로봇 NAMUHX 등 공개
- LGU+: Agent AI인 익시오(ixi-O)를 스마트폰을 넘어 웨어러블, 스마트글라스, 그리고 로봇을 결합. VLM 모델인 K-EXAONE 4.5 공개

MWC26에서 선보인 KT의 K-RaaS



자료: KT, 전자신문

MWC26 내 SKT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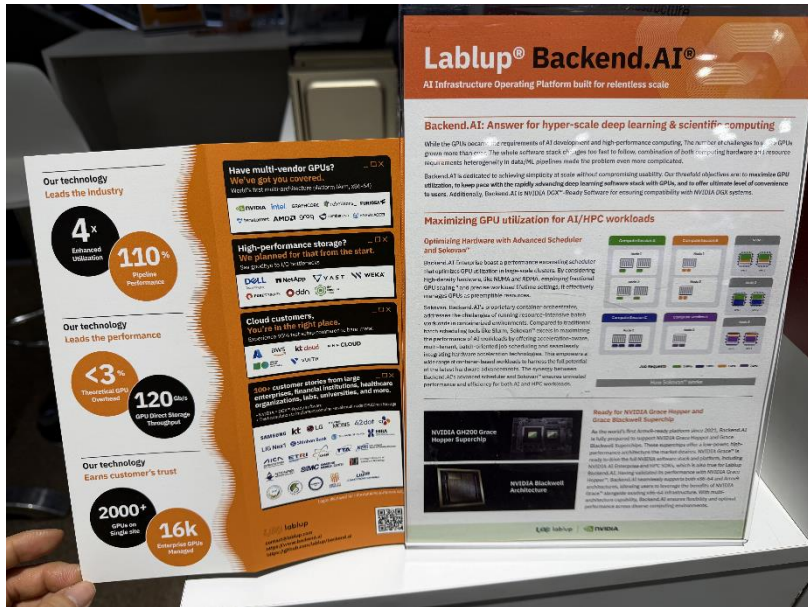
자료: GSMA, MWC26, SKT, 하나증권

7. Team Korea: 한국관 기업 소개

Lablup: 플랫폼 Backend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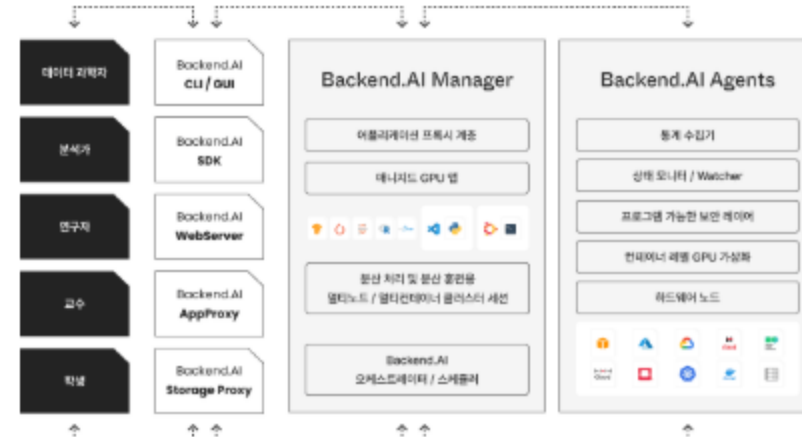
- Lablup은 백엔드 AI 서비스 기업으로 인공지능 클러스터 운영 플랫폼 제공
- Nvidia, AMD, Intel, 국산 NPU를 포함한 이종 AI 반도체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AI 인프라 도입 비용 및 운영 복잡성을 낮출 수 있게 함
- MWC26에서 영국 고성능 컴퓨팅 기업 보스턴 리미티드와 EMEA 지역 유통 및 판매를 위한 MOU 체결

Lablup 부스



자료: MWC26, Lablup, 하나증권

Backend.AI 플랫폼 개요



자료: MWC26, Lablup, 하나증권

Optiple: 가변 광학필름

- Optiple은 액정 Dimming 기술 기반 광학필름 기업. Dimming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술로 야외에서 Eyewear 착용 시 시인성을 향상하는 효과
- 여러 Dimming 솔루션 중 Optiple은 GHLC/LC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Liquid Crystal 기술은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시 소비 전력이 낮고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기술 협력 논의중

Optiple 부스



자료: MWC26, Optiple, 하나증권

Dimming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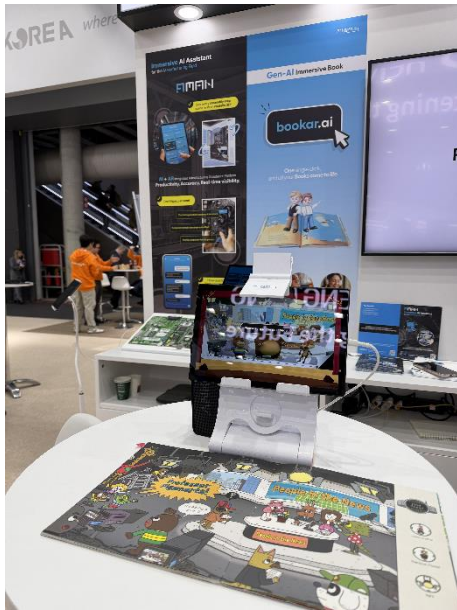
	Photochromic	EC (Electrochromic)	PDLC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GHLC/LC (Guest Host Liquid Crystal)	SPD (Suspended Particle Device)
Activation Stimulus	UV/Sunlight	DC Voltage	AC Voltage	AC Voltage	AC Voltage
Power Requirement	None (Self-tinting)	Low (Only during switching)	Continuous (To stay clear)	Continuous (To stay clear)	Continuous (To stay clear)
Control Type	Automatic	Bistable (Stays in last state)	Privacy (Opaque to clear)	Tinting /Dimming (Absorption)	Variable Dimming (Linear)
Response Time	Slow (Minutes to fa de back)	Slow (1~5 mins depen ding on size)	Instant (<100ms)	Fast (Milliseconds to Seconds)	Fast (1~3 Seconds)

자료: MWC26, Optiple, 하나증권

Artygen Space: 에듀테크

- Artygen Space는 AI 기반 AR Book 콘텐츠 자동 생성 기술 booker.ai 솔루션 보유. 도서 이미지 혹은 PDF 파일을 통해 AR 콘텐츠로 변환 가능하며 언어, 애니메이션 타입 등 난이도 설정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 MWC26에서 AI/AR 스마트 제조 솔루션 A-MAN 공개.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해 작업자에게 실시간 가이드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작업자 간 숙련도 편차를 줄이고 이상패턴 감지 가능

Artygen Space 부스



자료: MWC26, Artygen Space, 하나증권

Artygen Space 제품 라인업



자료: MWC26, Artygen Space, 하나증권

7. Team Korea: 한국관 기업 소개

EYL: 양자 보안시스템 기업

- EYL은 양자컴퓨팅 기술 기반 칩과 보안시스템 기업
- 양자난수생성 기술 기반으로 보안네트워크, 국방솔루션 등에 적용 가능하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전략기술 기업으로 선정
- 금융권의 PQC 양자컴퓨팅 암호 도입 가속화로 양자컴퓨팅 기반 보안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EYL 부스



자료: MWC26, EYL, 하나증권

EYL의 주요 제품



자료: MWC26, EYL, 하나증권

7. Team Korea: 한국관 기업 소개

Becon: AI 기반 두피/피부 솔루션

- Becon은 AI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두피 및 피부에 대한 분석 및 제품 추천 솔루션 제공. AI 분석 → 맞춤 제품 제안 → CRM 기반 개선 이력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토콜을 구축
- 2020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 C-lab에서 스핀오프 형태로 법인 설립
- 병원, 클리닉 등 B2B 방식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B2C 영역으로 확장 준비중

Becon MWC26 부스



자료: MWC26, Becon, 하나증권

Becon의 AI 스캐너



자료: MWC26, Becon,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보고서는 하나증권과 KOTRA 협업으로 해외전시회를 활용한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투자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 김민경)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 김민경)는 2026년 3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05일